

# 쇼팽·발자크...세기의 인사들 추모하며 산책과 사색



프랑스 북쪽 한 시골의 성당에 접한 공동묘지. 대도시 안에 위치한 성당의 공동묘지는 위생 상의 문제로 18세기 후반 폐쇄됐다.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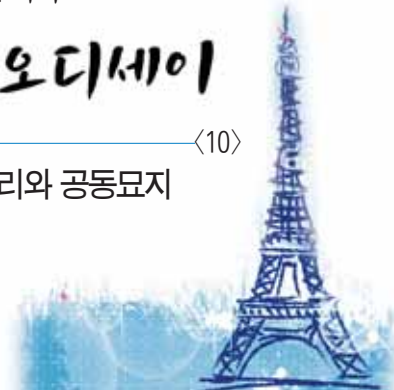


파리의 3대 공동묘지 중 하나인 몽파르나스 묘지. 이곳에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보들레르, 모파상, 드레퓌스, 갱스부르 등 파리를 거처간 수많은 유명인들이 묻혀 있다. /파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세계의 문화수도

### 파리 오디세이

파리와 공동묘지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조상의 성묘를 들르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전통이 아니다. 가톨릭 국가의 관습이 아직도 생활 전반에 남아있는 프랑스인들에게도 조상의 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기념일이 있다. '모든 성인의 날'로 불리는 11월1일과 '죽은 자의 날'인 11월2일이면, 프랑스인들은 소박한 꽃다발을 들고 동네 성당 옆에 모셔진 조상의 묘를 찾는다.

이 밖에도 조상이 사망한 날 또는 그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기념일 등에 종종 묘지를 찾는다. 묘지가 성당의 옆에 주로 조성돼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가능한 일이다.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도 이런 광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는 묘지를 동반한 성당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 대신 공원으로 조성된 대규모 묘지들이 도시의 곳곳에

## 나폴레옹 "모든 시민은 문필 권리가 있다"

## 대혁명 직후 소외계층 위한 대묘지 조성

## 예술가 잠든 '페르라쉴즈'·왕족 묻힌 '생드니'

## 도심 속 공원 역할...매년 수십만명 방문

위치해 있다. 대혁명을 전후로 파리에 생긴 큰 변화 중 하나다. 파리 시내에 종교기관과 연관이 없는 대형 공동묘지가 생긴 시기에 주목해보자. 파리의 3대 공동묘지인 페르 라쉴즈(1804년), 몽파르나스(1824년), 몽마르트르(1825년)는 모두 대혁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의 파리 외곽에 조성됐다. 대혁명 이전 파리 시내의 가톨릭 기관은 성당, 수도원 등 300 곳이 넘었다. 혁명과 함께 수많은 종교시설이 파괴됐고, 이와 함께 묘지들도 사라졌다. 물론 시내의 공동묘지가 안고 있는 심각한 위생 상의 문제도 새 묘지 조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파리 시내 북동쪽에 위치한 44만㎡ 규모의 페르 라쉴즈는 세계 최초의 공원식 묘지로, 7000개의 묘에 100만 구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대혁명 직후 집정 정부 시절의 나폴레옹이 "모든 시민은 인종과 종교에 관계 없이 문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처음으로 조성된 곳이 페르 라쉴즈 묘지다. 이교도와 무신론자, 광대, 빈자 등 당시의 소외계층들이 죽어서도 땅 속에 고이 묻히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파리지역들은 페르 라쉴즈를 선호하지 않았다. 성당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묘지의 위치도 하층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파리 시내의 성당 곁이 아니라면 아예 파리를 벗어난 고향 마을 등에 묻히길 원했던 것이다. 첫 안장자는 인근 생-안투안느 거리에 살던 종지기의 다섯 살 난 딸이었는데, 묘지가 조성된 첫 해 묘의 수는 13개에 불과했다. 다음해 44개, 그 다음해 49개 등으로 좀처럼 파리지역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파리지역에서는 묘안을 냈다. 12세기 '중세 최대 스캔들'의 주인공인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의 시신을 안장한 것이다. 또 대문호 플로베르와 라퐁텐느의 시신도 유치(?)했다.

1830년 페르 라쉴즈의 묘 숫자는 3만개를 넘어섰다. 1850년까지 5차례의 확장을 통해 조성 초기 17만㎡이던 면적이 현재의 수준으로 커졌다. 공동묘지 내에 있는 나무만도 5천 그루를 넘어 시민들을 위한 공원의 역할로도 손색이 없다. 한 해 수십만명에 달하는 입장객들은 묘지 안내지도를 들고 오노레 드 발자크, 프레데리크 쇼팽, 짐 모리슨, 이브 몽탕, 에디트 피아프, 오스카 와일드, 기욤 아폴리네르 등 파리를 빛낸 수많은 예술가들 사이를 산책하며 이들을 기억한다.

혁명 기간 무능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이 세운 자치 정부, 파리 코뮌의 마천표를 찍은 곳이 바로 페르 라쉴즈다. 보불전쟁 패배 이후 성난 민중들은 스스로 인민의회를 설치하고 70일 가량 파리를 자치적으로 통치했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 다른 나라 군대의 도움까지 받은 정부군에 밀려 시민군들이 다다른 곳은 얇은 언덕이 있어 방어에 용이한 페르 라쉴즈다. 이곳에서 생포된 147명의 시민군은 묘지의 벽 앞에서 총살을 당하고 그 자리에 묻혔다. 이로서 '피의 일주일'도, 파리 코뮌도 막을 내렸다. 페르 라쉴즈 묘지의 동쪽 구석에 위치한 초라한 벽에는 '코뮌의 사망자를 위해'라는 비석이 남겨져 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한 왕가의 시신은 역시나 민중의 땅이 아닌, 신의 영역에 있다. 파리에서 북쪽으로 5km 가량 떨어진 생드니 대성당에는 7세기 프랑스 왕인 다고베르 1세부터 마지막 전제군주 루이 18세까지 왕과 가족들이 묻혀 있다. 이 성당은 3세기 프랑스에 가톨릭을 전파한 파리의 첫 주교 생드니 성인이 순교한 곳에 지어진 상징적인 곳이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 혁명이 완성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계몽된 군중들에게 의회와 왕이 양립하는 입헌군주제란 새 술을 헌 부대에 넣은 모양새였다. 1792년 8월10일은 수천년 이어진 프랑스의 왕권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날로 기억된다. 무산계급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루브르 궁 인근 킬리리 공원을 습격하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망탈탑에 가둔 것이다.

공포정치에 접어들어 이듬해 킬리리 습격 사건 1주년을 기념하던 군중들은 역대 프랑스 왕들이 잠들어 있는 생드니 대성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군중들은 그 해 10월까지 50구가 넘는 왕족의 시체들을 파헤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성을 뒤로 하고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군중들이 옛 독재자들에게 벌인 복수는 무관심이라는 이상을 잃은 행동이었다.

왕리 9세의 참나무 관은 망치로 깨지고, 봉인이 뜯겨져 나갔다. 관에서 나온 시체는 이를 동안 전시됐으며, 시민들은 손톱과 수염 등을 가져갔다. 머리로 잘려진 채로 사라졌다가 19세기가 돼서야 발견됐다. 여성 노동자들은 루이 13세의 어머니로 설정을 했던 왕리 9세의 왕비 마리 드 메디치의 시체 앞에서 목숨을 퍼붓고, 머리 카락을 떨어버렸다. 시체들은 대부분 잘 보관돼 있었는데 이 점이 성난 민중들의 심기를 더욱 불쾌하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상도 천상도 아닌 곳에 묻힌 이들이 있다. 파리 남쪽에 출입구를 둔 지하묘지 카타콤브는 비석은 고사하고 이름 모를 수많은 파리지역들의 뼈로 빼곡하다. 18세기 말 도시가 팽창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파리 시내의 공동묘지 역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살을 앓았다. 전염병의 발원지로 지목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785년 말 공동묘지 폐쇄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부터 1788년까지 2년 동안 시체들을 지하로 옮겼다.

지하 20m 아래에 조성된 카타콤브에는 600만~700만 구의 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객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구간은 2km 남짓인데, 한해 30만명이 다녀간다. 1792년 킬리리 습격 사건에서 시민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1천명의 스위스 병사를 비롯해 1792년에서 1794년 사이 콩코드 광장의 단두대에서 사라진 1300여명도 이곳에 잠들었다. 이 중에는 당통, 데를랑,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이들도 섞여 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30년을 지켜온

###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과죽이**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죽이**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